



장성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장 당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7일 전주 한 음식점에서 회원사 총회와 동시에 진행된 차기 지회장 선거에서 장성태(태영기술공사 대표)가 전북지회장에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장성태 지회장은 전북도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선 됐으며, 임기는 2023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3년으로 한국엔지니어링 전북지회를 이끌게 된다.

장성태 지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 발전과 공정,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회원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업계의 어려움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김장김치 나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사랑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추운 겨울철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직접 김장을 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여 김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단체 봉사자들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복지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무주군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담긴 김장김치 1,000포기는 취약계층 지역장애인 55가정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중장대상자 20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일부는 경로식당 이용자에게 연중 제공될 예정이다.

이흥교 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향한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 약사회, 초·중·고 13명에 장학금 지원

군산시는 18일 군산시 약사회(회장 강종대, 건강일통약국)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39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시에서 추천한 초·중·고등학생 13명을 선발해 각 30만1천씩 390만원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 지원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 13명을 포함해 총 2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종대 약사회장은 "인재양성을 위한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이번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이끌갈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약사회의 지역사랑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주위의 이들을 위해 실천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휠체어 10대 '환우, 내방객' 위해 기증

전북대병원 최은주 간호사, 교원공제회 '희망선물 드림'서 받은 경품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 최은주 간호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받은 휠체어 10대를 환우와 내방객을 위해 기증했다.

휠체어는 최은주 간호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 주관한 대학병원 희망선물 드림 이벤트에 보낸 사연이 당첨되어 받은 상품으로, 최은주 간호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동명의로 기증을 했다.

기증식은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지난 18일 진행됐고 이날 '유희철 병원장, 신은주 간호부장, 최은주 간호사 한국교직원공제회 문대원 광주지역본부장, 장경림 전북지부 사무국장, 안병욱 팀장, 박기정 전북지부 회원 업무팀장'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병원 주사실에 근무하는 최은주 간호사는 "어린이병원에 오는 환아들 중에는 짧은 시간의 진료로 건강을 찾는 아이들도 많지만 긴 투병 과정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매번 택시로 버스로 힘들게 아이를 업고 안고 병원을 방문하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프다"며 "병원 환관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만 많은 수의 환자가 이용하다 보면 때로는 모자라서 이용을 못할 경우가 더러 있어 기증된 휠



체어가 병원을 찾는 부모와 환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벤트를 통해 여러 대학병원에 휠체어 등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감동적인 사연으로 받은 부상을 기증해준 최은주 간호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증받은 휠체어는 환자와 보호자 등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소중하고 뜻깊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사회적경제 열린 상담DAY 개최

남원시는 지난 18일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에서 '2022 사회적경제 열린 상담 DAY'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희망 특에 대한 수요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것으로, 사전모집을 통해 남원시 급지면, 대강면, 사매면, 주천면, 산내면, 식정동, 상교동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10여개 업체들이 참여했다.

상담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팀별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안내 및 창업준비팀이 갖춰야 할 준비사항 △개별 공동체 법인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및 사례탐색 △마을기업 육성사업 안내 및 공모사업 준비 등이 진행되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기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모델로 현재 남원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 (예비)마을기업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전라북도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남원시는 개별 상담을 통해 공모 대응역량을 기르고 사회적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열린 상담 DAY와 같은 다양한 기획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산불진화능력 입증... 장수군,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우승

장수군은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진안군 삼전면 일원에서 개최된 '2022년 전북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연대회에는 전북 14개 시·군 180여명의 진화대원들이 참여했으며, 가상 산불 발생 지점까지 산불진화차, 고압호스, 간이수조, 기계화시스템 등을 이용해 담수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은 최종 담수 완료 6분 40초로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6분대 기록을 보이며 최종 우승팀이 됐다.

특히 장수군 진화대원들은 경연대회가 열린 삼전면 경연 장소에서 수시로 사전연습을 수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이뤄낸 값진 우승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우리군 산불진화대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다음달 15일까지"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 운영됨에 따라, 최고의 산불진화능력이 입증된 우리군 진화대원을 필두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수병원, 캄보디아 의료 향상 방안 논의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이며 센속병원(Sensokih)의 병원장인 사보 오자노 병원장(Dr. Sabo Ojano)과 캄보디아 의료 향상과 양 병원간 협력에 대한 방안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센속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보유한 사립 병원이며 예수병원과 실무진 협의를 통하여 의과대학 커리큘럼 공동개발, 교수진 지원, 센속병원 선진화 및 질높은 의료 서비스 구축을 약속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선진화된 의료 기술과 인적 자원을 통해 꾸준히 의료 재원을 양성해 온 예수병원이 캄보디아 센속병원과 협력을 통하여 캄보디아 의료 발전을 함께 도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우석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비상 축제 개최

우석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18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나이팅게일(나이팅게일 비상하는 축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천현 총장과 노준희 간호대학장, 간호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108명은 촛불 의식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받아 주변을 밝게 비추는 간호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학생들은 간호 전문직의 직무와 의무, 책임을 맹세했다.

남천현 총장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봉사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환자들의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치유하는 간호사로 칭송받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천서영 전주시의회 의원, 전북환경대청상 수상

전주시의회 천서영(국민의힘, 비례)의원이 18일 저탄소 친환경사회 실현, 미세먼지 감소 생활화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4회 전북환경대청상 의회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전북환경대청상은 전북환경대청상 재전위원회가 주최하고, NGO환경문제연구소와 (사)한국기독교환경대책전북본부 등이 주관하며, 각 분야에서 환경보호 및 발전에 공헌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천 의원은 평소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저감, 미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 의원은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결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순창 민주평통, '평화의 다리' 지정 기념식

민주평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윤영식)는 지난 18일 순창읍 순창교에서 최영일 군수와 신정아 군의회 의장, 홍종식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를 건너 통일로 '평화의 다리'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대에서 즐겨 찾는 걷기 코스를 평화의 길로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분단 이전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순창교를 '평화의 다리'로 지정하여 개회식과 평화의 다리 표지판 제막식, 평화통일 공감 퍼포먼스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윤영식 회장은 "다리는 서로 다른 두 세상을 잇듯이 오늘 내딛는 평화의 다리의 첫걸음이 순창에서 모두에게 통일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전해져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전개공, 비전대 지적학과 재학생 직업멘토 운영

전북개발공사(사장 서경석)는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멘토링 활동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앞으로 '전북개발공사, 부안군, 남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원공간정보' 재직자로 구성된 멘토단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정보 제공, 취업노하우 전수, 입사지원서 작성, 기업탐방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내 역량 강화로 공사와 도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ESG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새일멘토-멘티데이' 개최

(재)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정정희)는 20일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취업여성 및 구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새일 멘토-멘티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일 멘토-멘티데이'는 여성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자와 구직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해 취업성공 스킬을 공유하고, 구직자 취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이날 직종별 2년 이상 장기근속 5명의 멘토를 선정하고, 구직자와 토크 방식(1:N)을 통한 취업성공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한 멘토(취업자)-멘티(구직자) 간 친목도모를 위한 힐링레크리에이션도 진행하며, 부대행사로 공인노무사를 통한 '심리·노무 고충상담' 부스도 마련됐다.

정정희 센터장은 "한발 앞서 나간 멘토의 취업 성공 스토리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960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